

## 성북동 안가(城北洞 安家)

### Seongbuk-dong Ahn's House

#### 단독주택 꿈꾸기

이 주택은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오다 작년에야 비로소 실현된 필자의 집이다. 내가 설계한 주택에 살아볼 수 있을까 막연히 기대했었는데 다행히 집사람도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하여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탈출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이다 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과밀해져 주거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지경이 되었다. 단조로운 아파트 내부구조 또한 너무 닫혀 있어 일상적으로 머무르기에는 갑갑하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살기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어렵다는 통상적인 거부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학군이니 재테크니 하는 주거를 둘러싼 많은 시달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거주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주택을 꿈꾸어 보기로 했다.



## 살만한 동네 찾기

주택에서 살기로 작정을 한 우리 부부는 살기 적당한 동네를 찾아다녔다. 주말이나 시간이 나는 대로 이곳 저곳 찾아 헤매다 보니 해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동네 찾기는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다시피 했다.

초기에는 낭만적으로 생각하여 서울근교의 전원주택지인 양평이나 용인, 광주 등지를 찾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으로 출퇴근 등 생활공간과의 거리가 멀어 길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까워 일찌감치 이쪽은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신도시인 일산, 분당의 단독주택지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신도시라는 곳이 알다시피 바둑판처럼 반듯 반듯하게 정리된 필지와 사통팔달 난 도로로 오히려 동네 입구가 어딘지 분간이 잘 안

되고 앞과 뒤의 구분이 어려워 무척 혼란스러웠다. 또 일시에 지어진 집들이라 사람 사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생경함으로 흔히 말하는 시간성이나 장소성을 느낄 수 없어서 별 매력이 없어 보였다.

다음으로 직주 근접의 이점을 고려해서 사무실부근의 동네도 관심을 가져 보았지만 옛날 강남의 아름답던 주거지들은 이제 다 세대 주택들로 뻥뻥이 채워져 삭막한 동네로 변해 버렸다. 덩달아 높아지는 땅값 뿐 아니라 더 이상 주택을 지어 살 수 있는 호젓한 동네가 아니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결국 강북 도심에 있는 주택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서울의 도심은 서울이 국제적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등 빼어난 자연 경관에도 궁궐들도 많아 훌륭한 역사, 문

화, 환경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이다. 무작정 강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겠지만 살펴보면 진흙에 묻힌 보물 같은 동네가 곳곳에 숨어 있다. 우리가 자주 발걸음을 하게 되는 곳으로 경복궁 주위, 북촌이라 불리는 가회동 주변, 삼청동, 청운동 그리고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는 성북동, 평창동, 부암동 등이었다. 점점 자주 가면서 서울도심에 있는 동네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주거지로 형성되어왔고, 별로 개발되지 않아 낯설지 않으며,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구불구불한 길이나 세월의 때가 곳곳에 묻어 있는 인공구조물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동네 가운데의 오래된 큰 나무들은 건축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장소의 혼(Genius Loci)을 느낄 만한 매력적인 장소들로 보였다. 이런 동네에 어떻게 비집고 들



어가 살아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동네 찾기는 흡사 배우자를 찾는 것 만큼이나 까다롭다. 게다가 빠듯한 예산에 공동건축주인 집사람과의 합의를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무척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그러다 몇 년 전, 오랜 방황 끝에 이 성북동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다. 인접한 삼선교는 학창시절 건축공부모임인 토단이 있던 곳이라 낯설지 않은 동네였다. 그 날, 그 골짜기를 들어가며 계속 펼쳐지는 동네풍경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멀리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짙은 녹음과 숲 속에 파묻혀 있는 집들, 도심 가까운 동네면서도 흔한 아파트 하나 안 보이는 느슨한 풍경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중에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연경관지구로 건폐율 30%, 3층 이

하 등 건축규제가 심한 동네였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이 잘 안 되어 결과적으로 땅값도 주변에 비해 낮았다. 이런 여러 조건들은 주택에 살아보려는 우리의 생각과 맞아떨어졌다. 결혼상대를 정할 때 눈에 공각지가 낀다는 말처럼 오랜 방황시간에 비해 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땅을 구입한 후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아파트 단지에 익숙해 부모의 일방적인 작당이 납득되지 않아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성북동이란 동네가 부촌인줄 알고 왔다가 수더분한 동네풍경이나 아파트 단지와 다른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하며 왜 강남의 말끔한 아파트를 두고 넓은 집을 사놓고 흐뭇해 하는 지 의아해했다.

### 동네어귀에서 안방까지

필자가 우리 동네로 인식하는 영역의 경계는 동네 초입에 있는 구멍가게다. 막다른 도로 입구에 있는 이 가게는 밤늦도록 부부가 번갈아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서서는 낯선 사람과 동네사람을 구별해낸다. 그들은 아파트 경비아저씨나 침단을 자랑하는 여러 방법설비 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든든한 동네 지킴이다. 동네 입구에서 언덕길을 조금 오르다보면 4미터쯤 높은 축대 위에 이 집 마당이 있다. 누구나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의 건폐율이 30%이니 대지의 많은 부분을 마당으로 쓸 수 있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넓은 실내보다는 넉넉한 마당이 있는 집이 가능했다. 대



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바깥마당은 도로에서 마당이 보이도록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보이는 반대쪽 안마당은 조금 독립적이고 내향적이다. 1층은 안마당을 주위로 한옥의 홀 집처럼 방이 늘어져 있다. 보통 아파트 내부구조가 복도를 가운데로 좌우에 방이 이어지는 겹집이라면 이 집은 각 방들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홀 집이다. 따라서 하루 종일 햇볕과 달빛에 노출되고 창을 열면 바람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낮 동안 이 집 어느 곳에도 전등을 켤 필요가 없다. 1층의 중심공간은 식당이다. 식당과 부엌은 각자 생활시간이 다른 가족이 서로 가장 많이 얼굴을 마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식당 상부는 2층까지 뚫려 있어 1층과 2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준다. 한실로 꾸민 손님방은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마시거

나 머물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 가족을 위한 공간인 거실은 2층에 두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획하고 서쪽으로 서울성이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마주 보이는 앞산을 내부로 끌어들었다. 건폐율한도 내에서 방을 배치하다보니 안방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3층을 전용하는 우리부부의 처소는 별채 혹은 옥탑방같이 아주 독립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집의 다른 공간은 3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농담처럼 이 방은 어마어마하게 넓다. 남산과 남산 타워 그리고 멀리 10킬로미터 밖 테헤란로 고층건물과 북한산까지 안방에 들어와 있다. 어느 날 집에 온 친구부부는 3층에다 방보다 복도와 계단이 더 넓고 많아 오르내리기 힘들고 마당 가꾸기에 골몰하겠다며 걱정스러워했다. 필자 생각에는 이러한 계단과 복도는 마당이나 주변

자연, 도시 풍경을 보는 실내 산책로이며 희량이다. 그러므로 방만큼 이런 공간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 날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복도를 지나면서 주변에 묻히는 즐거움은 따로 시간과 돈을 내고 하는 헬스장가서 땀내는 것보다 더 건강한 일이 아닐까.

### 집 짓는 일

경사진 골목길과 건평 7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일이지만 필자 자신이 직접 지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보니 그동안 몇 차례 우리 사무실과 일을 해본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코드가 맞으리라 기대하는 회사에 집 짓는 일을 부탁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대규모, 단순 공사에 익숙한 기술자들에게는 낯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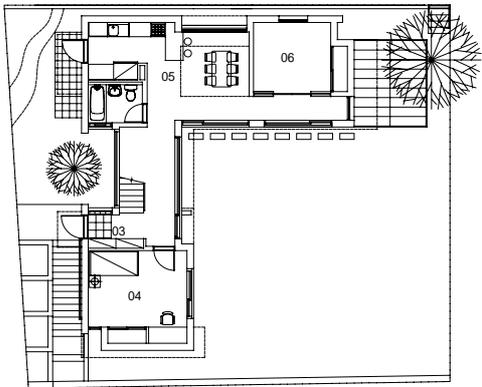
도 까다로운 현상이었다. 필자 자신조차도 그 동안 분업화되어 가는 건축직능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실감했다. 평소 사소하다 지나치고 협력 업체들에게 맡겼던 사항들을 새삼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정하고 설계하는 일들이 그리 쉽지 않았다. 건축가들이 가구 디자인에서 도시 설계까지 했던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건축설계, 도시설계, 조경설계, 인테리어 설계 등으로 나누어져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분 부분이 여러 전문가들의 손에 나누어 맡겨짐으로 걸으려는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우리 주변 환경들은 점점 더 메마르고 열악해지는 것 같다. 우리 집을 짓는 과정에서 유익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평소에 설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던 많은 작업을 직접 해 보았다는 것이다.

집 지을 땅을 찾아다니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무엇보다 꽃나무에 관심이 많은 아내와 마당에 심을 나무와 화초에 대해 나는 많은 얘기들 그리고 수년에 걸쳐 나무구경 다니던 일들은 멀리 여행 떠나기 전 마음 설레며 짜는 여행계획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우리가 원했던 마당의 그림은 건축적으로 마무리되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심각한 마당이 아니라 시시각각 철철이 변하는 살아있는 마당이다.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 전부터 자리를 지키던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 여름 날 서너달 붉게 피는 배롱나무, 가을에 풍성한 감나무, 고요한 겨울 밤 창에 비친 그림자와 바람에 일렁이는 댓잎 소리를 내는 대나무, 겨울 눈 쌓이는 마당 한켠 담벼락에 기

대어 목 길게 빼고 서 있는 자작나무 몇 그루. 이들은 우리 집 마당에 초대된 나무들이다. 이러한 조경 작업 외에도 평소에 주택 설계를 하면서 가구나 소품들을 끝까지 못 챙겨 주다보니 시간이 지난 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구나 커튼 등 소품들로 실망스러웠던 적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필자가 할 수 일들은 다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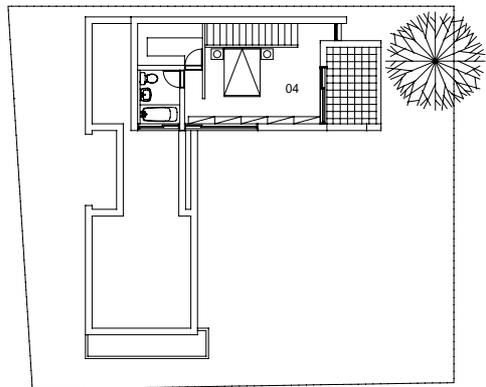
### 도시 주택에 사는 즐거움

우리가족은 지난 겨울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하루하루 변하는 날씨에도 자연히 민감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 화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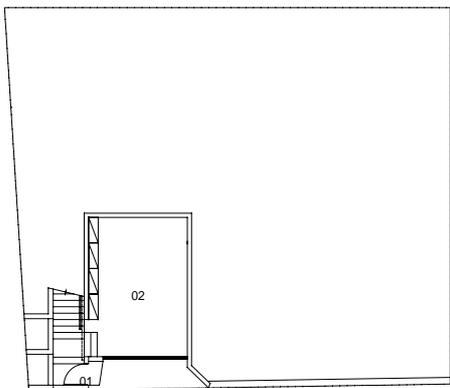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대문
- 02. 주차장
- 03. 현관
- 04. 침실
- 05. 식당, 주방
- 06. 손님방
- 07. 거실
- 08.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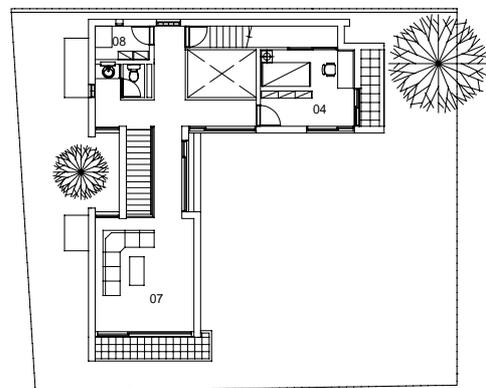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0 1 3 6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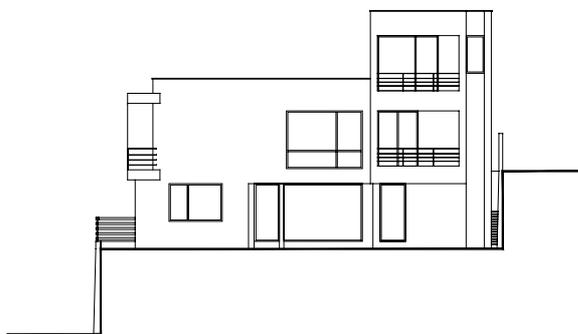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한 날 집안 가득 들어오는 햇살이나, 하얀 벽 위에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 뿐 만 아니라 비가 오면 마당에 비 닿는 소리,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소리를 온몸으로 느낀다. 주말에는 바로 앞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서울 성에 올라 서울 사대문 안 쪽을 보며 삼청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로를 어슬렁거리면서 창경궁과 종묘까지 걷기도 한다. 구경만 해도 재미있는 광장시장이나 방산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도 있다. 주택은 아침에 일하러 집을 나서고 저녁에 안식처로 돌아온다는 느낌을 준다. 아파트의 철문 하나를 경계로 안과 밖이 확연히 변하는 단절감이나 집에 머물러 있다 기보다는 집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아파트 구조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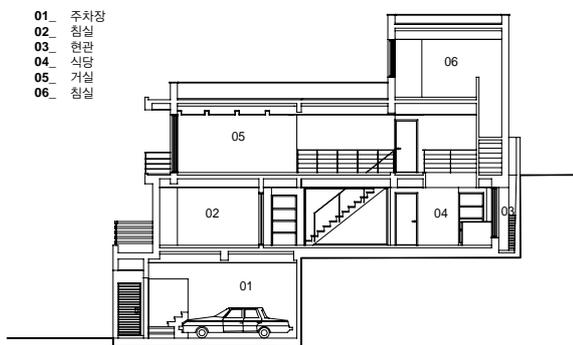
요즈음 웰빙이 유행이다. 이전 느리게 살기, 불편하게 산다는 말이 그렇게 새로운 말도 더 이상 아니다.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푸드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에 우리의 주거선택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너도나도 다 아파트에만 몰려서 살기보다는 살기 좋은 동네에 건강한 살림집을 장만해 살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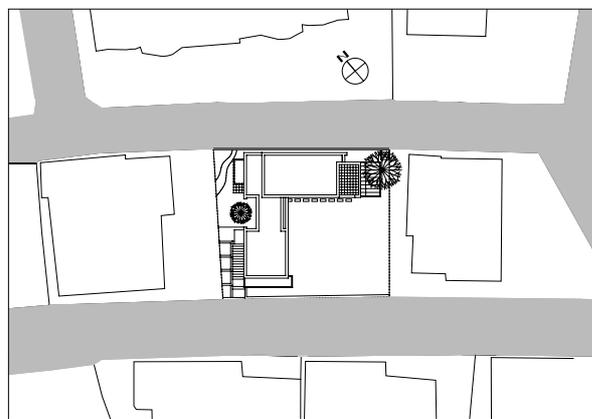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85-33
지역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74㎡
건축면적	80.6㎡
연면적	220.62㎡
건폐율	29.42%
용적률	70.88%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단열시스템
시공	예진건설
설계담당	김명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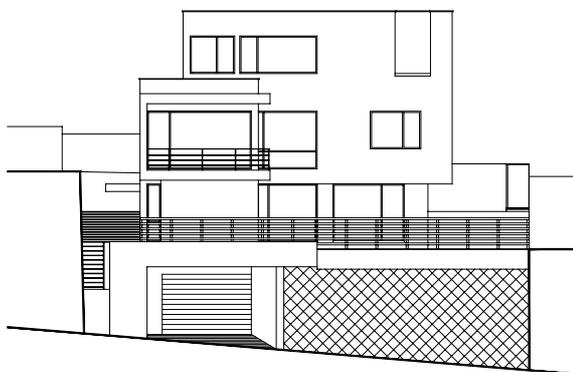


횡단면도



0 1 3 6

배치도



정면도